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25. 10. 22.
쪽수 3장 / 사진자료 4장

- 배 포 : 2025. 10. 22.
- 제 공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홍보담당 : 유채린 학예연구사(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개관 19주년을 맞이해 예술 축제 즐겨볼까

- ▶ 경기도미술관 2006년 개관 이후 19번째 개관기념일 맞아 다양한 행사 열려
- ▶ 경기도미술관-경기도무용단 협력사업 <움직임으로 그리는 춤 전시, 세종>
- ▶ '가을, 첫사랑'의 추억을 담은 미술관 버스킹 <찰랑, 찬란한 기억>
- ▶ 이지연 <젯소리> 철수 워크숍, 연탄재로 에너지 선순환 이어가 보자
- ▶ 뮤지엄 굿즈 퍼즐, 북앤드, 손거울로 소장품의 매력을 일상 속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오는 10월 25일, 개관 19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10월 25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에는 경기도미술관 1층 로비라운지에서 경기도무용단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술즐거찾기 <움직임으로 그리는 춤 전시, 세종>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무용단이 2024년 제작한 창작무용극 <세종>을 미술관 공간에 맞춰 재구성한 전시형 공연으로, 세종대왕의 내면과 철학,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무용의 언어로 시각화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미술관 1층 야외 수공간 데크에서 미술관의 인기 프로그램인 버스킹 공연 <찰랑, 찬란한 기억>이 열린다. 선곡 키워드는 '가을, 첫사랑'으로, 달콤쌉싸름한 첫사랑과 이별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곡들로 채워진다. 이번 공연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화랑유원지의 가을을 몸소 느끼며 음악에 취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월 25일(토) 개관기념일과 하루 전날인 24일(금) 양일 오후 4시에는 경기도미술관 1층 로비에서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의 출품작인 이지연의 <젯소리>를 철수하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 작품은 버려진 연탄재를 다시 구워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만든 뒤, 물이 흐르는 수조 안에 설치한 작품으로, 워크숍에서는 전시가 종료되는 주말 양일간, 전시의 주재료인 연탄을 폐도자기에 담아 참여자들과 나누며 에너지 순환의 의미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뮤지엄숍에서는 10월부터 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새로운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원성원 작가의 <Tomorrow-강아지 마을>, <Tomorrow-자매의 전쟁> 두 작품의 이미지를 담은 퍼즐, ▲구성수 작가의 <타임머신>을 활용한 북앤드, ▲강운·류민자 작가의 <순수형태-심경>, <정토> 작품을 담은 손거울 등이 마련되어 있다. 관람객이 전시장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작품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10월부터 11월까지 10%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도미술관은 2006년 개관 이후 지역 기반의 공공미술관으로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반영한 기획 전시, 경기 지역 작가의 발굴 및 지원,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예술과 지역사회를 잇는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현대목판화 70년: 판판을 뒤집다》 전시를 통해 총 74,459명의 관람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술 매체인 목판화를 소개하며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했고,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전시를 통해서도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선보이며 예술적 성찰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연간 운영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G뮤지엄스쿨'과 관람객과 예술을 연결하는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등도 활발히 운영되며, 경기도미술관은 예술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가을, 경기도미술관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첨부 사진]

<p>경기도무용단 〈움직임으로 그리는 춤 전시, 세종〉</p>	<p>경기도미술관 버스킹 〈찰랑, 찬란한 기억〉</p>
<p>경기도미술관 10월 뮤지엄숍 굿즈</p>	<p>경기도미술관 전경 사진</p>